대극장 로비에서 '천상의 하모니'

시립합창단이 마티네 콘서트 '어울림'을 오는 2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로비에서 펼친다.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광주시립합창단 기획 연주회 '어울림' 2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울림 활용…차·해설 가미 국내외 영화·드라마 OST 등 선봬

"대극장 로비의 잔향과 울림을 활용해 16성부 아카펠라의 미(美)를 온전히 전하는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공간 내부에서 공명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관객들께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월 광주시립합창단 연습실에서 만난 임창은 상임지휘자의 말이다. 임 지휘자는 당시 차와 해설이 있는' 마티네 콘서트'와 대극장 로비 울림을 활용하는 '로비 콘서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가지 아이디어의 장점을 혼합한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시립합창단이 오는 20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로비에서 선보이는 기획연주회 '어울림'이 그것. 'Music in Drama &Movie'라는 테마로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국내·외 명작 영화, 드라마 OST로 채워질 예정이다.

막을 올리는 곡은 영화 '엽기적인 그녀' 등에 삽입된 J. 파헬벨 '캐논 D장조'. 전지현이 학생들 앞에서 견우를 위해 이 곡을 연주하고 장미꽃 한 송이를 받는 장면으로 원작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한다. 이어지는 엔리오 모리꼬네 작 '넬라 판타지아'는 영화 '더 미션'에서 볼 수 있던 노래다.

임창은 상임지휘자

카운터테너 김대성과 함께 부르는 헨델 '울게 하소서'도 울려 퍼진다. 영화 '파리넬리' 중 카스트라토 카를로 브로스키의 음악적 고뇌와 자유 의지를 악곡에 투영했다.

영화 '플래툰'에서 들을 수 있던 사무엘 바버 '하나님의 어린 양'은 현을 위한 아다지오 버전으로, 영화 '맨하탄' 등에 삽입된 조지 거슈윈 곡 '랩소디 인 블루'도 레퍼토리에 있다.

소프라노 장미화, 알토 김혜진이 함께 부르는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도 있다. 원작 오페라에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최고 음역대의 소프라노) 역을 맡은 라크메와 하녀(메조소프라노) 말리카가 함께 부르는 이중창이며 드라마 '드림하이', 영화 '트루 로맨스' 등에서 OST로 만날 수 있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는 바리톤 손승범의 목소리에 실린다. 영화 '미세스 다웃파이어'에서 새장 속 새와 함께 주인공 역 로빈 윌리엄스가 부르는 노래다.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아무도 잠들지 마라',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세 곡이다.

이들은 각각 영화 '행복을 찾아서', 드라마 '빈센조', 영화 '귀여운 여인' 등에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테마곡이다. 1990년 개봉한 '귀여운 여인'부터 송중기 주연의 2001년 작 '빈센조'까지 고전과 최신작을 망라한다.(오보에 협연에 송애리)

임 지휘자는 "울림이 좋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화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티네 형식의 '로비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지휘자의 해설과 더불어 차, 다과를 즐기며 여유를 즐기는 음악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포맷을 확장해 전·후반기 각 1회씩 총 두 번씩 공연을 펼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석 1만원. 비지정 70석(대극장 로비 한계상).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역·여성 관점에서 본 '성차별'

광주여성가족재단, 내일 재단 소공연장서 포럼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2024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을 오는 6일 오후 2시 재단 소공연장(2층)에서 연다.

'인구 위기와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저출생 문제의 요인 중 하나인 '성차별', '젠더 불평등' 이슈를 지역·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다.

주제 발표자로 송다영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가 '저출생 정책의 현황 진단과 성평등한 정책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내용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30여 년간 여성·가족분야를 연구해 온 송 교수는 펜실베니아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이어 재단 정인경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현황을 중심으로'에서 지역소멸의 현주소를 톺아본다. 좌장은 정다은(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토론자로 조영임(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원), 정의진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활동가나 행정가, 일반 시민이 모여 공론의 장을 펼친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은 인구 위기와 성평등 문제의 상관관계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인구 위기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풀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코디언, 그 리듬 속으로

신영미 아코디언 독주회, 오늘 서빛마루문예회관

트롯, 폴카, 비긴, 왈츠 등 아코디언은 다양한 리듬을 소화할 수 있는 악기다. 취미나 여가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전문적인 반주 리듬과 기교를 듣고 있으면 숙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가늠할 수 있다.

아코디어니스트 신영미〈사진〉가 '신영미 아코디언 독주회'를 5일 오후 7시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펼친다. 신 씨는 목포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피아노)을 졸업했으며 체코 브르노 콘서바토리(아코디언) 연주자 과정을 이수했다. 광주음악제, 프린지 페스티벌, 양림축제 등 다수 공연에 출연했다.

마토스 로드리게스가 작곡한 아르헨티나 탱고 '라 콤파르시타'로 시작하는 공연은 아코디언에 특화된 장르 뮤제트 곡 'Reine De Musette'로 이어진다. 각각 신민숙, 방신옥과 협연할 예정.

영국 군악대 지휘관인 케네스 알포드 곡 '콰이강의 다리'는 김금희와 함께 들려준다. 하모니시스트 신현호와 함께 듣는 이동원의 '향수', SG워너비 '라라라'는 2부에서 계속된다.

아코디언 솔로로 K-POP 메들리를 연주하는 3부도 볼거리다. '아리랑 판타지', 굿거리 장단 '황진이' 등 전통음악 레퍼토리가 펼쳐진다.

이어 '봄날은 간다', '낭만에 대하여', '베사메무쵸' 등 익숙한 곡들과 '난 정말 몰랐었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이 울려 퍼진다. '대지의 항구', '이별의 부산정거장', '굳세어라 금순아' 및 '낭랑18세', '홍도야 우지마라' 등 주옥같은 노래도 아코디언 멜로디에 담긴다.(퍼커션 이정우)

신영미는 "중장년층이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경쾌하고 익숙한 곡들로 독주, 중주 연주회를 기획했다"며 "아코디언 자체로 멜로디와 반주가 모두 가능하기에 다양한 반주리듬은 물론 영화 주제곡, 우리가요 명곡 등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일상 속 '매혹의 순간들'

광주 출신 김은우 시인, 네번째 시집 '만난 적은…' 펴내

광주 출신 김은우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만난 적은 없지만 가본 적은 있지요'(한국문연)를 펴냈다.

'태풍주의보', '배웅', '벽화', '묶인 새', '자운영' 등 모두 55편이 실린 시집은 "매혹의 순간들에 대한" 느낌을 담고 있다.

김은우 시인은 "일상에서 가까이 있는 것들, 일테면 제가 겪은 이야기나 관심이 있는 소재들 중심으로 썼다"며 "아울러 소외된 것들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이를 시로 형상화했다"고 전했다.

이번 작품집은 4년만에 나온 신작 시집이다. 시인은 광주에서 등단하고 활동하다 지난 2004년 광양으로 갔다. 당시 그는 "광주에서 광양으로 올 때는 몸도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작품을 쓰기에는 좋은 환경이어서 창작활동에 집중했다"고 했다.

"두 손을 펼치고 손금을 들여다본다// 마주 접히면 맞닿을 출렁이는 길들/ 서로 반대편을 향하고 있다// 잘못 들어 애먹었던/ 얼핏 보면 닮은 넘실거리는 길들// 뿌리로 가득한 길들 중에는/ 길게 이어지는 빛나는 길이 있는가 하면/ 길 밖으로 뻗어나간 길도 있다…"

'손금'이라는 시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우리 삶의 우연과 필연, 희로애락의 소소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우리 삶이 지닌 본질을 시인은 개성적인 시각으로 풀어냈다. 손금을 보며 지나온 길뿐 아니라 나아가야 할 길을 예감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이철주 문학평론가는 김은우 작품집에 대해 "살갗 깊숙이 파고들어 제 문장이 품은 열로 읽는 이의 말과 몸을 뜨겁게 데운다"고 평한다.

한편 김은우 시인은 지난 1999년 시와 사람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바람 도서관', '길달리기새의 발바닥을 씻겨주다 보았다', '귀는 눈을 감았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